

#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에 나타난 사회적 지속가능한 디자인 관점에 관한 연구

## Analysis of Herman Hertzberger's Architecture for Social Sustainable Design

Author 송은아 Song, Eun-A / 정희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박사과정수료  
김문덕 Kim, Moon-Duck / 명예회장, 건국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sustainability is gradually being highlighted in several ills and consciousness of crisis of modern architecture. However, many of us tend to realize its sustainability focusing on ecological sustainability in many ways. Such perspective is considerably technical and extensive. Therefore, I paid attention to Herman Hertzberger's architecture to find out how to consider spatial aspects, when interior architecture designers engage in design process.

This study aims to analyze architectural progress for social communication of Herman Hertzberger's project, breaking from the existing research to only limit him to one of structuralism architects.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n relation to social sustainability, universal/social design, cultural design and green/ecological design have been progressed in their forms through communicational perspectives of social architecture which he's insisted since the structuralism era.

Recently, majority of issues about sustainability are restricted to economical aspects. Accordingly, further study is needed to consider his architecture from social aspects. As his architecture is concentrating on coexistence from a social perspective for communication, not on modern spatial discourse, his architectural works need to be analyzed consistently as realistic measurements.

Keywords 네덜란드 구조주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헤르만 헤르츠버거  
Dutch structuralism, Social sustainable, Herman Hertzberge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르 꼬르뷔제는 그의 저서 프레시지옹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인간)와 자연(환경)이라는 거대한 그릇 사이에서 서로의 영역성을 경계 짓지 않고 다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축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렇듯 건축가는 자연과의 분리가 아닌 상호적 관계를 가진 지속적인 건축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의 지속성에 대한 개념은 현대건축의 여러 병폐와 위기의식 속에서 부각되어지는 것으로, 건축디자이너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이고 개념적인 접근을 통해 자연환경과 건축 환경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점차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지속성이란 관점을 상당부분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러한 관점은 상당부분 기술적이고 광범위한 접근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설계에 임하였을 때 공간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을 주목하게 된 배경이 있다.

그는 대체적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각 단위 공간의 개별성을 획득하고자 했던 구조주의 건축가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FORUM지를 통해 함께 활동했던 스승 알도 반 아이크와의 연계 작업이후, 그의 작품은 초기 작품의 유니트 반복적 경향에서 벗어나 변화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적 건축어휘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줄 뿐 아니라, 구조주의적 지속적인 성장의 양상을 지니면서도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변화의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를 일반적인 구조주의 건축가로 평가하여 한정하던 기존의 관점이 아닌, 지속성

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에 주안을 두어 풀어나간 건축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가 모색하고자 하는 건축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공간의 지속성을 내재한 표현방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헤르만 헤르츠버거를 흔히들 구조주의적 건축가로서 해석하여 그의 초반 작품의 어휘들을 분석하곤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90년대 이후부터 도시적 맥락성 가운데 진행하게 되는 프로젝트에서부터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Chasee극장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적 변화의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건축의 사회성 모색으로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그의 회사인 architectuurstudio HH의 홈페이지의 프로젝트 보고서 및 출판물을 바탕으로 한 문헌 조사와 현장답사,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구성원들과 지인들의 인터뷰가 담긴 영상물의 내용분석을 통해 진행 하였다.<sup>1)</sup>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았던 헤르츠버거의 4권의 저서에는, 그가 델프트 공대에서 지난 수 십여 년간의 건축수업을 통해 강의했던 건축 철학과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작품별 개념이 설계도면 및 스케치들과 더불어 자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에 그의 건축의 성향을 정리하기에 유용했으며, Bergeijk는 『Herman Hertzberger』에서 그의 건축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론하고 있다. 또한 다큐영상 『Searching for Space』에선 구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그가 추구하는 지속적인 건축철학을 재조명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필자는 2010년 8월에 12일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델프트 유트레흐트 아른헴 아센 리우바덴 등 네덜란드 전역의 20개 도시에 걸쳐 완공된 헤르츠버거의 작품을 답사하며, 그의 건축철학의 성과를 확인하고, 구조적관점에서의 형태 분석을 넘어 꾸준히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건축으로서의 건축가적 책임을 어떻게 확장시켜가고 있는지를 조명해 볼 의미가 있다 판단하였다.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시대별 디자인 특성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시대별 디자인 특성 구분

	시대 분류	공간
초기 구조주의 경향	1960's	Studentenhuys House(1959-1966) Delftse Montessorischool(1960-1966)
구조적 형태 건축의 완성기	1970's	Centraal Beheer head office(1968-1972) Music Centre Vredenburg(1973-1978)
사회적 건축으로의 모색을 통한 변형기	1980's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Employment (1979-1990) Theatre Centrum Den haag(1986-1993)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적 측면 형성기	1990's	Bibliotheek ;muziekcentrum Breda(1991-1993) Chasse Theatre(1992-1995) Theater Markant NV(1993-1996) Bijlmer Monument(1994-1998) Warenhuis Vanderveen(1993-1997)
사회적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적 확립기	2000's	Orpheus Theatre(1999-2004) Shelter For Culture(CODA)(2000-2004) Waterrijk,Spicentrum(2007-2010) Muziekpaleis, Utrecht(2003-2013)

## 2. 헤르츠버거의 건축 특성 형성 배경

### 2.1. 구조주의 건축의 경향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1958년 졸업과 동시에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이와 함께 60년대 초반부터 알도 판 에이크와 야곱 바케마와 더불어 포럼(Forum)의 편집장을 역임함으로써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경향을 대변하였다.

건축에서의 구조주의란 50년대 이전의 기능주의에 대한 반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Team10을 주축으로 주로 미래에 대한 실험적인 이상향을 선보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Team10의 멤버였던 알도 판 에이크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한 정신적 태도와는 대조적인 과거에서 그 해답을 찾고 인간의 근원을 발견자는 건축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아프리카나 북미대륙과 같은 옛 문명 여행을 통해 직접 답사하고 거기서 보여지는 원시적인 원형에 대해 연구하여 그것을 현대 건축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들이 구조인류학자인 레비 스타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건축인류학자'로, 알도 판 에이크를 비롯한 헤르만 한, 야곱 바케마, 헤르만 헤르츠버거, 피에트 블룸 등으로 A. Luchinger<sup>2)</sup>에 의해 네덜란드 구조주의라 명명되는 그룹이다. 인간의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요구로 돌아가자는 주장아래 구조주의의 초창기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과 달리 네덜란드 구조주의 건축가들에 의해 방향회전을 한 인류의 근원적인 부분의 모색과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구조언어학적 해석이 어우러져 1960년부터

1) 헤르츠버거의 저서 『Lessons for Students in Architecture』, 『Space and Learning』, 『Space and the Architecture』와 Herman van Bergeijk의 평론집 『Herman Hertzberger』, 필자의 2010년 8월 17 - 28일간의 헤르츠버거의 네덜란드에 준공된 건축 답사, <http://www.ahh.nl>의 내용 및 2010년 출간된 『Searching for Space』의 헤르츠버거와 가족 직원 및 지인들과의 인터뷰 다큐영상 등을 중심으로 그가 추구하는 건축철학을 정리하였다.

2) Arnulf Luchinger는 그의 저서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계획』를 통해서 알도 판 에이크와 헤르만 헤르츠버거 등의 건축을 분석하며 구조주의 건축이라고 명명하였다.

집합주거와 교육시설을 통해 적극적인 실험을 통한 공간적 적용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헤르츠버거는 델프트 몬테소리 스쿨에서 보여지기 시작한 in-between 개념을 센트럴 비히어 본사에 더욱 구체화하여 그의 구조주의적 성향으로 구축해나갔다. 그러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한 원형의 반복을 통한, 다층적 다의적 공간에서 집합적 책임감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았다.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상호소통을 통해서 개인의 사회적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던 그의 신념은 변화가 없지만, 사람들의 사회규범인식 및 정서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그의 작품의 형태적 경향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 2.2. 사회적 지속가능한 건축으로서의 재고

지속가능성이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1987년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의장인 부른트란트에 의해 ‘우리 공생의 미래’라는 보고서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생태적 측면, 자원 이용적 측면, 반 기술주의적 측면, 무성장·저성장주의적 측면에 상호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었다.<sup>3)</sup>

1960년 환경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그 개념의 범위가 확장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열리고 ESSD 개념으로 각 계획 영역과 자연환경 보전 등의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건축을 비롯한 전반적인 디자인 영역에서 추구되어지는 디자인 원리로서 특히 건축에서는 기존의 일방적이고 직선적인 소모경제의 한 전형으로서의 건축행위에서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여 삶의 질까지 그 영역으로 확대하여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sup>4)</sup>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사회적 개발(커뮤니티 활성화), 사회적 혼합(연령층, 소득계층의 혼합), 교육(환경교육, 자연학습) 그리고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전, 지역특성의 반영) 등으로 이연숙은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미래 환경디자인 패러다임의 정의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 그린/생태디자인, 소셜디자인, 문화디자인 등의 환경창조 패러다임을 포용력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정의한다.<sup>5)</sup>

<표 2> 환경디자인 패러다임의 사회적 지속성

패러다임	사회적 지속가능성 연계 실험 예제
유니버설/소셜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우선하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실현 하는데 기여</li> <li>· 노령화로 인한 기능 쇠퇴에도 시설로 옮기지 않고 기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li> <li>· 사회적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주거지와 도시개발, 다양한 주거대안 개발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게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지속성에 기여</li> </ul>
문화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역사는 보존하여 발전시켜나감, 도시환경은 지역인의 애착심 자긍심을 길러주고 지역 고부가가치를 높여 지속적 존속에 기여</li> <li>· 지역하위 문화적 스파릿을 고양시키고 창의적 문화는 진작시키는 제반 프로그램과 시설은 지역인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 유인효과를 높여 지역의 지속적 존속에 기여</li> </ul>
그린/생태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공간의 생태적 건강성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통해 삶의 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성능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지속성 증진에 기여</li> <li>· 도시 환경과 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 줌으로써 그 지역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게 하는데 기여</li> </ul>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건축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1990년 이전의 작품 중심으로 알도 판 에이크의 건축과 더불어 분석이 이루어졌으나, 헤르츠버거가 건축을 임하는 자세, 건축의 사회적 역할 및 환경과 인간을 위한 공간에 대한 모색, 여러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화려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접근 및 최근의 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배려한 건축계획의 경향은 그의 건축을 최근의 지구적인 문제이자, 인류공통의 과제가 되어버린 ‘지속가능한 건축’의 등장과 함께 새로이 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미래 환경디자인 패러다임과 연계성이 크기에 이연숙(2000, 2005)이 미래 건설환경 창조의 패러다임을 정리한 것을 다시 유사한 부분들을 묶어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하였다.

## 3. 헤르츠버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양태의 변화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1960년대부터 ‘구조적 형태’에 관심을 가져오기 시작하여, 1973년부터 알도 판 에이크와 피에트 불룸등과 더불어 네덜란드의 건축잡지인 ‘Forum’의 칼럼을 통해 기능주의 건축으로 발생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건축가가 사용자입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적 해결책을 찾는데 주안점을 둘 것을 역설하였다. 1966년 델프트 몬테소리 스쿨에서 공간의 관계성에 중점을 둔 구조적 형태를 뚜렷이 보여주기 시작하며, 사용자인 아이들에게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초기작인 델프트몬테소리 스쿨, 다이아군 주택, 센트럴 비히어 본사 사옥 등에서 전체 이루는 원형을 찾아 그것

3) 이기복,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주거단지의 계획기법 연구, 충남대 석론, 2004, p.7

4) 권영제·김정신, Norman Foster의 건축 공간에 나타난 지속 가능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4호 통권 75호, 2009.8,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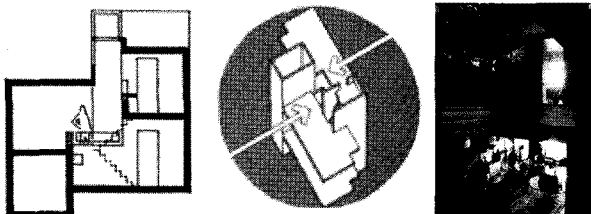
5) 이연숙·윤혜경, 샌프란시스코 Yerba Buena Garden의 사회적 지속 가능 디자인 특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8 No.3, 2008.06

이 반복을 통한 연결적 관계성을 가지는 구조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는 Theatre Centrum Den Hagg를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복합적 기능과 만남을 유도하였고, 이후 90년대 Breda뮤직센터 및 도서관과 chasse 극장, Markant NV 극장에서 오픈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 유기적인 활성화를 꾀하는 구조적 형태를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Orpheus극장, CODA, 뮤직펠리스 NHL등에서 역사적 건축물과 현대건축의 공존의 방법을 탐구한 조화를, MFC Presikhaven, Schakwijk extended school, De Salamander Extended school, Waterrijk, spilcentrum에서 교육공간과 사회적 복지공간과의 조화, De Opmaat Brede school, De Vogel Primary school과 Stedelijk Gymnasium, 위트레흐트 대학의 신과학연구소에서는 건축에 미치는 외부 환경과 건물의 내부적 요인들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의도하였다. 이처럼 헤르만 헤르츠버거는 공존과 조화의 원리를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장소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의 디자인 특성은 90년대 이후, 공공영역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문화공간과 교육공간에서 더욱 발전된 디자인 형태로 나타난다.

### 3.1. 1960년대 - 구조주의 건축의 의미완성

본질적으로 구조주의 건축은 기능주의가 갖는 획일화에 대한 반발로 식별성(identity)을 주장하고 개인적 생활패턴에 대한 집단적 해석인 표준형이 아닌, 집단적 패턴 안에서 개별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원형(prototype)을 찾아 제안한다. 모든 도시적 스케일을 망라하여, 골격을 지니고 다의적(多義的) 의미를 지니는 공간적, 커뮤니케이션적, 구조적 형태단위들의 형성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거주자들이 구조체와 접촉하고 이를 해석하며, 미완성인 채 남겨진 디테일을 완성함으로써 구조체를 완전히 소유하였을 때 그 구조체는 완성된다. 따라서 형식주의적(formalism)적 경향의 건축은 배제되며, 융통적 형태(Flexible form)도 공간적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포용시스템이라는 이유로 거부된다.



<그림 1> Diagoon Woningen 다이아군 주택(1967-1970)

구조주의 건축의 그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인간과 건축 환경 간의 본질적인 관계성에 기초하여, 전반적인 건축 환경이 시간성을 포용하며 유기적 성숙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기초역할을 하는 객관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으로, 어떤 독립적 특수정보보다는 일반적 다양성을 지니는 건축 환경을 추구하였다.<sup>6)</sup>

무엇보다, 헤르츠버거는 언어학에서 유추한 언어모델을 사용하여 거주자의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또한 다의적 형태(co-determination)를 통하여 공동 결정 형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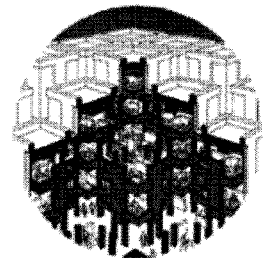
대표적인 작품으로 Diagoon 주택인데, 여기서 그는 주택의 골격을 일부 미완성으로 두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설계된 틀이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에 따라 방을 만들거나 구획을 나눌 수 있고, 여러기능\_ 거실이나 휴식 및 식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두 개의 반층이 걸쳐져 있는 중심부로 구성되어 있다.

헤르츠버거의 작품 속에서는 공간, 입면, 환경적 설계 차원에서는 물론 미세한 디테일에서 매우 복잡한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조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sup>7)</sup> 그는 공간을 기능주의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가치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복수적인 사용을 유도하고<sup>8)</sup> 이것이 공간의 활성화되는 상황을 유도하는 힘이 되도록 했다.

### 3.2. 1970년대-80년대 - 건축 공간의 사회성모색

헤르츠버거가 건축의 내부에 가로적 개념을 모색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형태를 뛰어넘어 공간의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으로, 사적인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 영역에 활발한 움직임들을 유도하여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70년대 그의 건축적 사고의 특징은 사회성을 반영한 공간의 공공화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센트랄 비히어 본사 사옥은 9미터의 입방체를 기본 모듈로 삼아 시작된다. 이것은 중간에 통로로 인해 4등분이 되어 네 명의 작업공간을 제공한다. 모듈과 모듈 사이에는 3미터 폭의 통로가 있어 이동과 휴식을 겸한다. 건물은 단일한 작



<그림 2> Head Office  
Centraal Beheer  
센트랄 비히어 본사  
사옥(1968-1972)

6) Arnulf Luchinger, 최중현·이기민 옮김,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계획, 세진사, 1989, p.26

7) 전개서, p.117

8) 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Spacetime 2005, pp.117-118재인용

업영역들이 모여 전체를 이루고, 그 연결된 공간들 사이에 방대한 중심거리들이 놓이게 되며, 각 모퉁이에서는 만남과 휴식을 만드는 장소들이 위치한다. 크게 보면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천장을 두어 오픈된 느낌이 강한 공적 공간이 위치하므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 사이의 복합구성을 이룬다.

건물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건물이어야 한다는 Van Eyck의 말처럼 거주자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라 이 건물의 각 부분이 민주적으로 처리되면서 센트럴 비히어의 건물이 재탄생하도록 하였다.<sup>9)</sup>

### 3.3. 1990년대 - 문화공간의 공공성을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헤르츠버거는 생산성이 현대건축의 중심 매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유발될 수 있는 여러 쌍방 개념들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사용자와 건물 사이의 쌍방 교류의 문제로 보고 사용자가 건물을 더 적극적으로 풍부하게 사용할수록 건물이 형태, 해석, 의미작용, 기능 등 여러 면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준다고 믿었으며, 이런 자신의 믿음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거기에 더불어 이런 상호작용이 집단화되는 과정에서 건물이 사회적 중요성을 획득한다고 보았기에 사회적 교류를 이끌기 위한 공간과 장치들에 관심을 가졌다. 90년대 들어와서 헤르츠버거는 집합주거 및 교육시설 외에 문화공간에서도 그의 건축적 신념을 실현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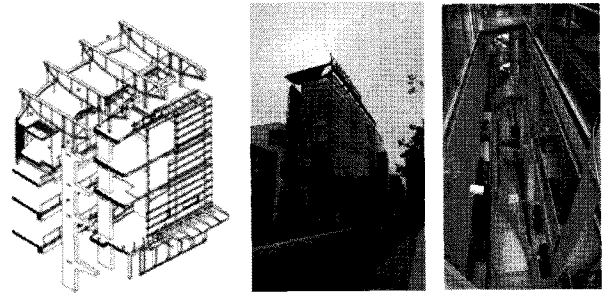
브레다 음악당과 도서관 및 chassé 극장, 마칸트 극장에서는 주거공간과는 다른 접근이 나타난다. 그가 주장했던 반복된 원형은 이 공간에선 사라진다. 개인을 위한 공간이 아닌 공공의 영역이기에, 여기엔 균중과 또 이용자 그룹의 단위에 맞춰 거리의 개념을 적용하고 로비와 홀, 계단 등에 사용자의 사회적 교류를 이끌어 나가고자



<그림 3> chassé 극장(1992-1995)

하였다. 다양한 중간 층들의 휴게공간, 그 공간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그리고 계단을 통한 사용자들의 이동은, 여럿의 시선들이 교차되어 자연스런 만남을 유도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관람자들은 오픈된 여러 개의 층으로 구분된 휴게 공간을 통해 공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풍

9) 전개서, p.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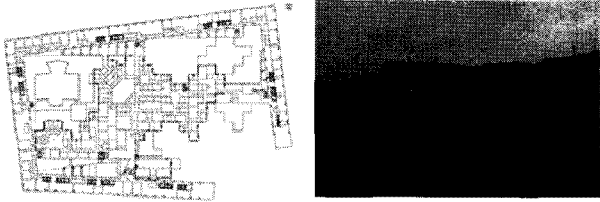
<그림 4> 반데르덴 백화점(1993-1997)

부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그의 이 당시 지어지는 공공 건물의 형태적인 특징은 주변과의 어우러짐에 주안점을 두어 건물이 화려하거나 독보적으로 위용을 드러내기도 하는 소박하고 검소한 외관을 가진다. 반면에 내부는 대리석이나, 장식들을 지양하되, 과감한 색상의 대비와 주변의 경관을 고려한 커다란 창들은 폐쇄적인 극장이 아닌, 화려하고 밝은 실내 홀을 연출할 뿐 아니라, 자연채광과 실내의 자연환기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적 건축 공간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chassé 극장에서는 기존의 역사적 건물들과의 어 공존에 대한 문제를 그 만의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하였고, 브레다 도서관 뮤직센터에서 보여 졌던 건물이 현 거리 경관의 일부가 되게 하고자 역으로 기울어진 유리파사드와 캐노피 기둥의 연출하였다. 이 방식은 마칸트 극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하여 외부 가로와 내부 가로를 통합한 공공영역으로 실현되었다. 더불어 1997년 반데르덴 백화점에서 난해하고 복합적인 기존의 상점 공간을 균일한 유리 외벽을 통해 통합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독립적으로 증축된 공간은 그 덧댐으로 인해 기존 공간을 새롭게 진입하는 물리적 공간의 사회적 접합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풀어나갔다. 또한 백화점이라는 마케팅 요소가 강조된 공간의 방정식을 깨고 실내의 조도를 조절하는 천창, 광장으로 열려진 유리 파사드를 적용한 방법은 과격적이기까지 하다. 반데르덴 백화점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헤르츠버거는 관념적이고 일정한 구조만을 따른다는 비판을 극복하였으며 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적용했던 복도와 계단에 '거리'라는 사회적 공간으로 연출하는 개념은 한층 더 다양한 방식으로 심화시켜 나갔다.

### 3.4. 2000년대 - 재생건축과 지역사회학교를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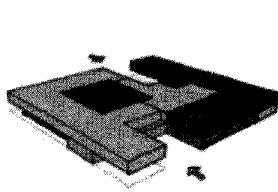
1988년 그가 집필한 건축수업에 '사회적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련짓는지, 또는 다른 디자인 상황들과 어떻게 관련짓는지가 함축하는 영향력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듯이, 그는 꾸준히 공간을 구조화하기 위해 적용한 전략들은 사회적 접

함을 유도하였고 또한 그러한 디자인이 실제로 관계와 행위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뮤직 펠리스, CODA 등의 문화공간과 NHL대학, 드 스피 지역사회학교, 드 옴마트 지역사회학교, MFC Presikhaven, 스칼크위크 지역사회학교(Schalkwijk brede school), 드 살라만더 지역학교(De salamander berede school) 등의 교육시설에서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간, 역사성을 살리는 재생 건축을 통해 공간으로서의 그의 철학을 관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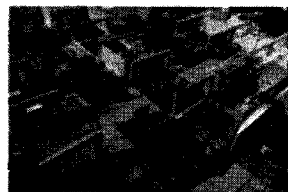


<그림 5> NHL 대학(2004-2009)

2010년에 증축된 NHL대학은 1984년 아베 본네마(Abe Bonnema)에 의한 기존건축에 새로운 건축적 틀을 제안하여 액자 같은 결합적 틀의 제공한다. 동시에 소규모 개체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구조는 여전히 존립하고 증축된 건물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보존된다. 기존 건물에 있는 복도의 미로 시스템에서, 새로운 건물과 연결된 두 수직 축이 넓혀짐으로써, 중심 거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또한 위쪽의 시야가 확보 될 수 있는 이중 높이 공간이 창설되었다. 기존의 미로 시스템은 새로운 건물과 연결된 두 수직 축이 넓혀짐으로써 중심 거리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천창 및 채광창을 추가하여 개선된 공간을 연출한다.



<그림 6> 드 샬리멘더 brede school(2004-2007)



<그림 7> 워터릭 네이버후드 센터(2004-2007)

그 외에 CODA와 2013년에 완공될 예정인 뮤직펠리스 역시도 기존의 건축을 최대한 보존하는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공간의 재생을 모색하고자 한 증축건물이다.

지역사회학교(Brede school)이라는 네덜란드의 학교와 사회복지개념의 공간이 맞물린 개념의 새로운 교육체도는 헤르츠버거의 교육공간에 개념과 잘 어울려 2000년대 들어와 드 스피 지역사회학교, 드 옴마트 지역사회학교, MFC Presikhaven, 스칼크위크 지역사회학교(Schalkwijk brede school), 드 살라만더 지역학교(De salamander

berede school) 워터릭 네이버 후드 센터등을 통해 학교 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이 공존하는 다양한 기능이 맞물림으로 인한 활용도를 높여 효율성 있는 공간으로 소셜네트워크의 장으로서의 지속가능한 건축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사회적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헤르츠버거의 건축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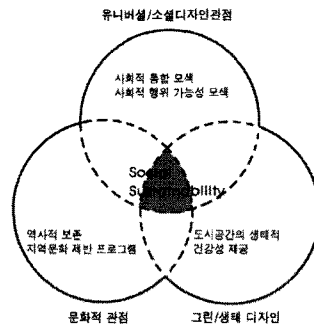
사회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패러다임을 통해 세 가지 관점에서 헤르츠버거 공간 특성을 <그림 8>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유니버설/소셜디자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을 기존의 지역에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 사회적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매개 공간의 사회적인 행위\_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문화적 디자인측면으로는 건축이 가지는 장소성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의 역사적 건축물과 그 지역의 문화 및 흔적 등의 외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현대적인 재료와 더불어 새로운 전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그 만의 구조적인 문법으로 재해석한 공간에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무엇보다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한 그의 작업은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 뿐 아니라 의미를 더욱 부여하므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꾀한다.

셋째, 그린/생태적 측면에서 그는 기존의 자연 지형 유지와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고려 및 유기체 구조를 통해 본질적인 자연의 의미를 건축공간에 반영하여 공간의 효율적 가치 개발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자재에 있어서도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재료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

모되는 자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거기에는 주변과 대비되어 부각되기보다는 어우러지게 하고, 건축가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한다는 그의 사회적 건축으로서의 철학이 밑받침 되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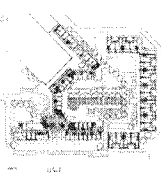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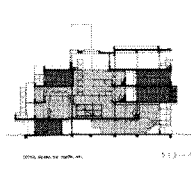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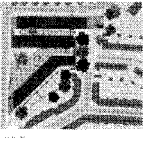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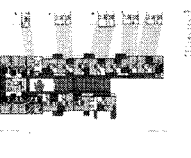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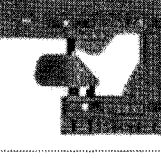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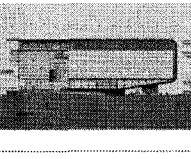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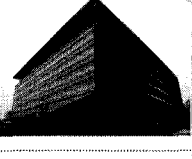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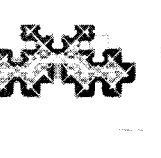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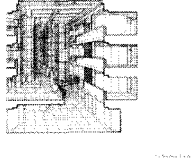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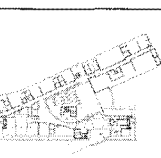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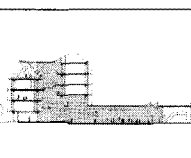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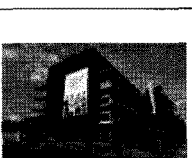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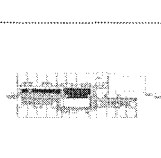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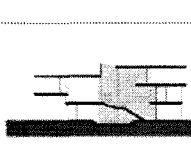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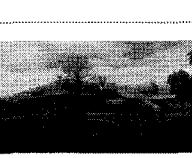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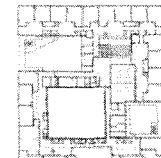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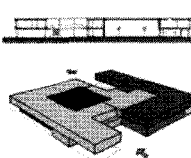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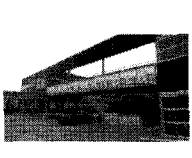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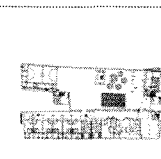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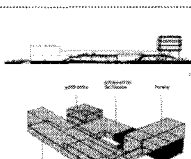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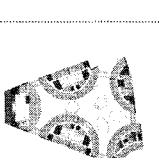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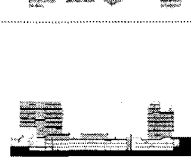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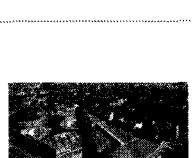



<그림 8> Social Sustainability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본 헤르츠버거 건축의 공간특성(2004-2007)

##### 4.1. 유니버설/소셜 디자인 관점

유니버설/소셜 디자인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 볼

<표 3> 헤르만 헤르츠버거 건축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 분석\_유니버설/소셜 디자인 관점

적용특성 분류	적용방법	건축사례	개요	평면	입면	외부	내부	공간의 특성
사회통합 모색	노인들의 지속적 삶을 가능케 하는 주거	De Overloop Elderly home	1980-1984 Almere Netherlands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주거지역과 근접한 거리/소통을 위한 사회적 공간의 내부화 모색
	다양한 주거 대안	Residential care complex	2002-2008 middleburg, Netherlands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임대아파트로 중첩된 구름다리를 통해 이웃간의 소통을 유도
사회적 행위 가능성 제시	내외부환경의 연계/오픈된 스페이스	Faculty of science	2006-2010 Utrecht Netherlands					주변환경과 열린구조를 통해 사회적 연대에 기여/내부의 가로적 확장
	업무공간에서의 공공 영역의 가로화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employment	1979-1990 Den Haag Netherlands					개인영역들과 공유영역은 이동영역의 기능을 떠나 행위를 유발하는 가로화 된 공공영역
	교육공간에서의 공공 영역의 사회성 증진	Montessori College Oost	1993-2000 Den Haag Netherlands					교육공간은 복합공간을 통해 사회적 다양한 행위를 유발
	교육공간과 지역사회의 연계적 공간으로의 시도	MFC presikhaven Arnhem	2005-2009 Arnhem Netherlands					교육공간에 지역사회로 열린 공간으로의 도서관과 체육공간.
		De Salamander brede school	2004-2007 Arnhem Netherlands					교육공간이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복합적인 구성을 통해 방과후에도 다양하게 활용
오피스와 주거의 linkage	Schalkwijk brede school	2002-2007 Harlem Netherlands					3개의 교육프로그램과 주거공간까지 더불어 복합적으로 구성된 건축	
	Mediapaga office and Housing	2000-2004 Cologne Germany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을 연결하고 공유영역을 통해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노인 주거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주거에서의 지역과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과 또한 그 주거 내에서의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84년의 드 오버루프 노인 주거(De Overloop Elderly home)와 2008년의 레지던셜 케어 콤플렉스(Residential care complex)를 들 수 있다. 특히 드 오버루프 노인 주거(De Overloop Elderly home)는 노인의 다양한 상태에 따라 그의 일상의 삶들을 배려하고 그 내부에서 다양한 나눔과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그의 가로적 공간의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건축철학이 잘 적용된 예이다. 그 후 2008년에 완공된 레지던셜 케어 콤플렉스(Residential care complex)에서는 단순히 노인 뿐 아니라 다양한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공간에서의 쾌적에 있어 무엇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는 소통적 공간이 실내 실외의 접점에서 커뮤니티의 장소로 완성시키고 각 동의 연결공간이 폐쇄적이지 않고 열린 매개공간(linkage space)으로 활용되었다.

둘째로 사회적 행위 가능성 제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공적 공간에서의 매개공간에서 그는 커뮤니티를 위한 매개 공간들 간의 연계적 연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2010년 완공된 위트레흐트 대학의 신과학 연구소(Faculty of science)에서는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램볼하스의 오디오리움과 유사한 계단의 역할을 하는 건물의 구조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유기적인 형태의 캐노피를 가진 건물의 주 출입구에 해당하는 전이 공간을 비워줌으로써 지역의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을 볼 수가 있다. 1990년에 지어진 헤이크 사회고용복지 자원부(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employment), 헤이그 몬테소리 단과대학(Montesori College Oost)에서의 공공 공간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하여 긴 복도 끝의 벽에 전면 유리로 처리하여 내 외부의 시각적 소통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길과 연결시키고 있다. 각 층들과 각 공간들은 소통 없이 조각처럼 분리된 관습적인 패턴이 아닌 중심부의 보이드(void)부분에서 각 층들은 반 층씩 상하층으로 엇갈리게 하여 대각선의 시야로서 소통을 만들고 각 공간 사이에 영역을 만들어 주변 공간의 기능을 수용 연결시킨다<sup>10)</sup>. 다목적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공간들을 개방적으로 연계하므로 공공영역의 가로화를 만들었다.

공통적으로 각 실과의 매개영역에 다양한 행위들을 수용하므로 소통을 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이동공간이나 매개공간이 아닌, 적극적 행위의 유발을 통해 그 공간을 극대화시킨다. 복잡한 연결을 통해 수많은

은 시선의 교차들을 피하고 계단식 오픈 강의동이나 만남의 영역을 통해 커뮤니티의 활성화, 또한 지역사회로의 연계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외부의 유입을 프로그램화 시킨다. MFC 프레사이하벤 아른헴(MFC presikhaven Arnhem), 드 살라만데 지역학교(De Salamander brede school), 살크wijk 지역학교(Schalkwijk brede school) 등의 교육시설에서는 네덜란드만의 독특한 교육시스템인 지역학교(brede school)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을 실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공간이 단독건물이 아닌 복합적인 교육기관의 결합 뿐 아니라 유치원이나 도서관, 운동시설 등의 지역복지 공간 뿐 아니라, 주택 등이 결합되어 복합적인 기능의 역할을 한다. 내부는 외부를 받아들이고 외부는 내부와 함께 하려는 완충된 특성으로 건축과 환경의 대립적인 면을 하나로 연계시키려는 도시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공간의 전이되는 영역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사용자들의 다양한 개인적 해석들을 전이영역에 적용하여 단절된 공간의 흐름을 완화시켰다.

#### 4.2. 문화적 관점

문화적 관점 역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역사적 보존으로 기존의 공간 프로그램의 변형이 아닌 유지를 하되 덧대어진 공간을 통해 더욱 대비시켜 부각시키거나 보조적 접근을 통해 적극적인 공간의 재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는 기존의 것을 매우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재생활을 연출하는 데에 탁월함을 가진다. 반데르반 백화점(Department store Vanderveen)은 기존의 공간이 가지는 단점과 일반적으로 이론화 된 백화점이나 상공간의 외부와 단절된 방식이 아닌 소통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증축 하였다. 전면부가 커튼월로 이루어진 개방 된 파사드로 연출하고 백화점 전면에 위치한 광장과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전면에 증축된 파사드와 기존 백화점과의 매개공간(Linkage)을 통해 백화점의 상징적 입면을 더욱 내부에서 강조하고, 천창을 통한 더욱 밝은 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주변의 광장과의 연계적 컨텍스트를 제시하는 방식은 이후, 센트럴 비히르 본사(Central Beheer Head Office), 델프트 몬테소리 유치원(Delft Montessori) 등의 그의 30년 전 프로젝트의 증축에서나 2010년에 리모델링한 NHL 대학(NHL hoegschool)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오르페우스 극장(Orpheus Theatre), 뮤직팔리스(Muziekpaleis), 차세 극장(Chasse Theatre) 등의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문화공간에서도 보이드(void)되는 공간의 유기적인 형태적 차이는 있으나 연결된 매개공간의

10) 광두환, 헤르만 헤르츠버거의 교육공간에 나타난 전이영역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론, 2010, p.97



<표 4> 헤르만 헤르츠버거 건축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 분석\_문화적 관점

적용 특성 분류	적용 방법	건축 사례	개요	평면	입면	외부	내부	공간의 특성	
역사적 보존	공간 프로그램의 재생화	Department store Vanderveen	1993-1997 Assen Netherlands					기존 건물에 통합된 파사드를 설치하고 서비스영역을 제공하여 공간을 활성화	
		NHL Hogeschool	2004-2009 Leeuwarden Netherlands					기존 건물을 둘러싼 건물과 기존 건물을 관통하는 상호관계적 통로	
		Central Beheer Head Office	1990-1995 Apeldoorn Netherlands					기존의 반복적 블록과는 달리 내부 및 외부까지 소통의 개념으로 마감	
		Delft Montessori	2010 Delft Netherlands					1960년대의 블록이 반복된 패턴으로 증축되어 공용부분도 확장	
	역사적 공간의 재활성화	Orpheus Theatre	1999-2004 Apeldoorn Netherlands					기존 공간과 증축 영역과의 형태 및 재료의 대비를 통해 건축을 더욱 부각	
		Muziekpaleis	2003-2013 Utrecht, Netherlands					기존 콘서트홀을 증축 공간 내부에 포함시키고 확장된 타기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Chasse Theatre	1992-1995 Breda Netherlands					홀과 이동 공간을 역사적 건축과 연계된 공공 영역으로 연출	
	지역 문화 제반 프로그램	지역 주민 참여 유도	The Markant NV	1993-1996 Uden Netherlands					소규모 지역사회의 거리경관의 일부가 내부의 거리로 연결
		지역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Shelter for culture CODA	1979-1990 Den Haag Netherlands					박물관 도서관 식당이 맞물려 운영되는 지역 주민에서 열린 공간
지역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Bibliotheek; muziekcentrum Breda	1979-1990 Den Haag Netherlands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도서관	

강조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그는 중축 공간과 연결된 공간을 브리지와 재료적인 차별화 등을 통해 매개적(Linglage) 공간으로 부각시키고 천창을 통해 한층 더 밝게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로 지역문화제반 프로그램으로 나타는 거리의 경관을 끌어들이 내부의 가로와 연계되어진 형태이다. 마칸트 NV(The Markant NV), CODA(Shelter for culture CODA) 브레다 뮤직센터(도서관(Bibliotheek; muziejkcentrum Breda)에서 특징은 외부의 거리와 실내의 보이드(Void)된 거리가 맞닿아 길게 연출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공간들은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단순히 공간의 기능을 떠나 건물과 맞닿은 거리나 광장 또는 연계된 지역의 복지 문화공간<sup>11)</sup>과 공유하는 중정 등에 건물의 전면부나 실외와 맞물려 보이드(Void)한 실내의 가로적 공간을 연출하게 하므로 실내외가 소통하는 실내외가 모호하게 연계된 공간으로 표현하였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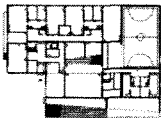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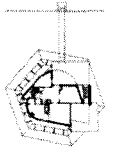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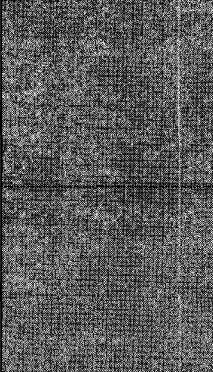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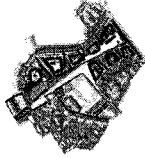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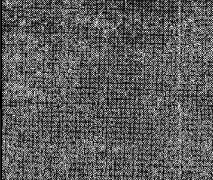






#### 4.3. 그린/생태디자인 관점

그린 생태적 관점은 도시공간의 생태적 건강성을 제공하는 녹지공간과 더불어 구성되었다. 옴아트 지역학교(De Opmaat Brede school)의 경우는 지역주민과 교육시설과의 상이한 요구사항의 접점을 풀어나가기 위한 장치

적인 도구였으나 그것이 그 지역의 녹지적 공간을 제한 것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그리고 인근의 주거지역과의 새로운 접점의 공간으로서 매개적이고 전이적인 영역으로서 재해석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건물이 강렬하게 부각되지 않고 녹지공간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부합되었다.

또한 실험적인 주택 워터보닝(waterwoning)은 기존의 그의 프로젝트들과는 다른 성격의 매우 사적인 주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역시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그때의 상황에 따라 방향과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부유하는 주거로서 자연에 순응하고 소통하는 주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녹지공간과 자연과의 연계성은 비르쉐 푸르트 마스터플랜(Veersche Poort master plan)이나, 파스크호 도시계획(Paswerk Urban plan)등의 대단위 주거단지계획에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표현된다. 비르쉐 푸르트 마스터플랜(Veersche Poort master plan)는 기다란 운하를 마주 보며 계획된 주거단지로 작은 공유하는 중정을 마주한 주거 20호 내외의 단지로 구성하여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다. 비르쉐 푸르트 마스터플랜(Veersche Poort master plan)은 집합주거의 복토처리 된 옥상정원들이 펼쳐지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 자연친화적 주거를 형성하고 있다. <표 5 참조>

<표 5> 헤르만 헤르츠버거 건축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 분석\_그린/생태 디자인

적용특성 분류	적용방법	건축사례	개요	평면	입면	외부	내부	공간의 특성
도시공간의 생태적 건강성 제공	녹지공간을 통한 도시적 성능을 높임	De Opmaat Brede school	2004-2007 Arnhem Netherlands					주변의 주거지역에서의 공원의 필요와 학교시설이 결합
	자연에 순응하는 주거	waterwoning	1998-2002 middleburg Netherlands					물위에 떠있는 상황에 따라 건물의 방향과 위치조정에너지 효율을 높인 구조
	환경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Veersche Poort master plan	1995-2007 middleburg, Netherlands					운하와 더불어 존재하면서 각동의 중정을 통해 각각의 커뮤니티를 형성
		Paswerk Urban plan	2000-2007 Haarlem Netherlands					집합주거의 옥상을 복토로 처리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인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11) CODA의 경우는 기존의 도서관과 박물관 및 레스토랑이 맞물린 형태이며, 중앙에 중정을 공유하고 있다.

## 5. 결론

헤르츠버거의 공간 설계에 대한 주체적 개념을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표 6> 헤르만 헤르츠버거 건축의 사회적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

관점	적용 특성 분류	적용방법	통합적 특성
문화적 관점	역사적 보존	공간 프로그램의 재생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전체를 통합하는 파사드 부분에 커뮤니티시설이나 전체를 관통하는 소통공간으로서의 가로공간을 linkage
		역사적 공간의 재활성화	역사적 건물과의 연계성을 통해 공간의 다각적 시각화/ 기존의 공간의 기능을 더욱 부각시켜 활성화
	지역문화 제반 프로그램	지역주민참여유도	지역과의 접점 부분의 오픈되고 중앙은 오픈된 공간으로의 가로적 연결
		지역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사적공간과 공적 공간의 연결 공간이 매개적 공유공간으로서 활용
그린/생태 디자인 관점	도시 공간의 생태적 건강성 제공	녹지공간을 통한 도시적 성능을 높임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용 하여 학교시설 외에 공원공간 제공
		자연에 순응하는 주거	운하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이동이 자유롭고 향방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인 친환경적 건축
		환경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집합주거에 녹지 공간을 상층부에 설치하므로 건축을 자연과 더불어 연출
유니버설/소셜 디자인	사회 통합 모색	노년의 지속적 삶을 위한 주거	기존의 노인시설과 달리 일상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노인들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인 시설
		다양한 주거대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단지내에 기존의 가로공간을 건축물과 결부시켜 소통을 원활하게 포함
	사회적 행위 가능성 제시	내외부환경의 연계/오픈된 스페이스	지역과의 접점 부분의 오픈되고 중앙은 오픈된 공간으로의 가로적 연결
		업무공간에서의 공공영역의 가로화	사적공간과 공적 공간의 연결 공간이 매개적 공유공간으로서 활용
		교육공간에서의 공공영역의 사회적 증진	중앙의 오픈된 스페이스는 복도 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천창과 더불어 커다란 아케이드를 형성
		오피스와 주거의 linkage	지역사회를 위해 열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도서관 체육시설들은 학교의 저층부에 설치하여 닫힌 공간이 아닌 참여하는 공간으로 전개

<표 6>에서 분류되어진 지속가능한 공간 설계 적용 특성은 서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헤르만 헤르츠버거를 구조주의 건축가로 한정지어 분류하던 기존의 연구를 벗어나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건축의 진보를 분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란 유니버설/소셜디자인, 문화적 디자인, 그린/생태디자인의 측면에서 그가 구조주의 시절부터 주장하던 사회적 건축으로서의 소통의 관점들을 양상을 통하여 형태적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지속가능성이란 이슈가운데 대다수의 관점이 경제적 측면에 국한된데 비해 사회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의 건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공간에 대한 사고의 발전이 현대적 공간담론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의 관점이 소통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공존에 맞춰있음에 그를 통해 계획적 부분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앞으로도 그의 건축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Herman Hertzberger, Lessons for Students in Architecture, 010 Publishers, Rotterdam, 2009
- Herman Hertzberger, Space and Learning, 010 Publishers, Rotterdam, 2008
- Herman Hertzberger, Space and the Architecture, 010 Publishers, Rotterdam, 2000
- Herman van Bergeijk, Herman Hertzberger, Birkhäuser, 1997
- Kees Hin, Marten Kloos, Searching for Space
- Herman Hertzberger, Lessons for students in Architecture, 효형출판 2009
- Arnulf Lüchinger, 최종현 · 이기민 옮김, 구조주의 건축과 도시 계획, 세진사, 1989
- 봉일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Spacetime 2005
- Giedion, Sigfried, Space, Time and Architecture, 공간·시간·건축 2, 최창규, 중판, 산업도서출판공사, 서울, 1990
- 이기복,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주거단지의 계획기법 연구, 충남대 석론, 2004
- 권영재 · 김정신, Norman Foster의 건축 공간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8권 4호 통권 75호, 2009.8
- 이연숙 · 윤혜경, 샌프란시스코 Yerba Buena Garden의 사회적 지속가능 디자인 특성,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8 No.3, 2008.06
- http://www.ahh.nl

[논문접수 : 2011. 04. 30]  
 [1차 심사 : 2011. 05. 22]  
 [2차 심사 : 2011. 05. 30]  
 [재제확정 : 2011. 06. 10]